조선인민군 대좌 김철운 선생.

김철운 선생은 1904년에 북한 길주에서 탄생하시였다. 김선생이 탄생할시 선생의 부모들은 그들의 생활정도로 보아 중등이상의 부유한 가정으로서, 토지도 몇정보 있었고, 또 적으만한 병원에 약국방까지 구비되여 있었다. 아부지는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고등상식을 소유한 의사로서 시민들의 존경을 받아오며 살았다. 가정에는 철운 선생의 위로 형 한분과, 아래로 1915년에 탄생한 녀동생 하나가 있었다. 그 외에 온 가정의 존경을 받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던바, 그들은 철운 선생을 특별히 사랑하였다. 할아버지는 자기 생전에 총애 받는 둘재손자 철운 선생이 장가갈것을 요구하며 철운 선생은 하는수없어 1915년, 겨우 십일세 되는 해에 동리에 아주 부유한 남선달의 집 딸 남봉숙이하고 결혼하게 되였던바, 봉숙양은 그 당시 14세가 되였었다.

II. 1. 2.

1

철운 선생의 부모들은 아들 형제를 언제던지 일을 시키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게하였다. 김 선생은 벌서 1923년에 길주에서 고등과를 마감하고 그 해로 동경으로 유학가게 되였다 동경에 도착한 철운선생은 동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세상의 정세를 눈이 밝게 되였으며, 좋은 선진적 영향을 받게 되였다. 동경제대에 입학한 김선생은 1927년에 드디어 법학부를 졸업하게 되였으며 동경 생활의 4년동안 김선생은 소문난 애국주의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배외심 적개심이 견결한 민족주의자가 되였다. 고향에 돌아온 김선생은 이전의 전체 동창생들은 물론 그 외에도 전체 한인 청년들을 묶어세워 공산 청년회 대열에 결속하면서 청년들의 모든 혈기를 바쳐 일제에 항거하며 목숨을 바쳐 조국을 도로 찾을데 대한 운동을 열렬히 전개하였다. 벌써 동경에서부터 꼬리표가 달려온 김 선생은 매일 경찰서에 호출당하였으며, 벌서 수차 검거까지 당하였다. 그리고 경찰서에 등록되며 자유로운 시외 외출을 금지 당하였다. 이 애국 청년 운동에는 김선생이 혼자가 아니라 선생의 형도, 또 나어린 누이동생도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김 선생은 이런 형편에 있어서 민족 해방 운동은 선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자 몇명의 가까운 동무들은 고향땅을 떠나 중국이나, 아니면 소련 지역에 가야 혁명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약속하게 되였다. 1929년에 김선생의 형이 검거되자 김선생의 일행 5명은 소련땅을 향하여 원동변강 블라지보쓰또크로 떠나오게 되였으며, 14세되는 여동생은 동리 청년 빨찌산들과 함께 동만으로 망명 떠나고 말았다. 그후 감옥에 잡혀들어간 김선생의 형은 옥사하였으며, 김선생의 많은 친구들은 역시 고향을

떠나 다부분이 동만으로 가게되였다. 김선생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인제는 고향땅에서 살자리가 없다는것을 깨닫고 역시 어디던지 떠야 되리라고 생각하였던바, 일본 경찰놈들은 집을 떠난 자식들이 무슨 련락이나 취하고 있는가 하여 노인들을 매일같이 호출하고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김선생의 부친은 며느리 봉윤이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아들을 찾아 쏘련 땅에 발길을 돌갔던바, 그것은 원동변강에 와서 시세 형편을 시찰할겸 아이들도 다려다 롤겸하여서 였으며 살만하면 하나밖에 안남은 아들을 따라 역시 원동에 이사하여 올 계획이였다. 그러나 문제는 계획보다 달리 되였다.

쏘련국가 정책이 1929년말까지는 국경에 대한 통제가 완화하여, 원동에 살고있은 한인들은 조선 지역이나 중국지역을 쏘련 영토내의 다른 지역과 같이 자유로이 출입하였기때문에 명절이면, 특히 한설이나 추석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을 찾아 가군, 오군 하였다, 그러나 1936년부터는 쏘련 국경 봉쇄 정령이 발표되여, 월경하는 사람들은 붙잡아 감금하였으며, 지어는 수개월 동안식 강제로동까지 시켰다. 이런 환경에서 김철순 선생의 부모들은 쏘련원동에 이사하여 올수없어서 몇해동안 기다리다가 하는수없이 동만주 연길현에 이사하여 갔다. 그곳에 가서도 길주에 계실때처럼 적으마한 치료실, 약방등을 차려 놓고 여러 한인들의 동정을 받으며 외신없게 지내였다. 원동에 이사하여온 김선생은 인제는 가족까지 찾아와 살림사리를 제대로 차려야 하였다 김 선생은 장가는 일직이 갔으나, 부인에 대한 애정은 없어 20세 되는 해에야 첫아이를 보게 되였다. 김선생의 자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 의하면, 장가는 11세때 갔으나 부인과 동침하기는 18세나 되서야 시작되였다고 하였다.

김선생의 할아버지는 김선생이 자기부인하고 동침하기 싫어하는것을 눈채고는 항상 손자를 불러놓고 일러주었으며, 때로는 봉순이하고 한방에서 같이자면 아침에 감주도 주고, 대추도 준다고 달래였다고 하며, 집에서 작난질하다가 무엇이던 파손시켜 놓아도 어누런 책망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렇게 잘지내던 김선생은 원동 다반이란 곳에 와서 처음에는 한인 아이들의 학교를 조직하고 다음 몇해후 그 학교가 자라서 초중 고중까지 되며, 그 학교 교장 직위에서 한인들의 강제이주 - 즉 1937년까지 일하시였다.

김철훈 선생의 일가가 길주에서 완전히 떠나자 선생의 부인 봉순의 부모들은 제때에 그곧을 떠나지 못하여,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가정이 완전히 일본놈들에게 의하여 파산되고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4촌, 6촌도 남지 않았으며, 먼 친척들까지 하나 없이 1945년에 조선이 해방된 후 고향땅에 찾아갔었으나 아무도 만날수 없었다.

한인들에 대한 강제이주로 인하여 김철훈 선생은 자기 가족과 같이 우즈벡 공화국 안지산주 사흐리잡 구역 산날린 꼴호즈에 도착하게되였다.

쏘련에서 한인들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하던 시기, -강제 이주, 조선에서 들어왔으며, 상식이 높은 한인 인테리들은 모조리 검거 투옥, 한글의 교육 폐지 이 모든 쏘련 정부의 만행은 김철훈 선생으로 하여금 대단히 고민케하였으며, 하루도 편안한 밤을 자게 못하였다. 그것은, 김선생은 조선에서 왔을뿐만 아니라, 고등 상식수준, 그것도 일본동경 제대, 또 쏘련에 입국한것이 1929년, 모든 조건이 피할수 없는 불행의 조건들이였으나, 우연하게도 행복한 운명이 그를 돌아 선생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었던것이다.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선생 자신의 이런 우연성은 천만에도 기다리지 않았으나, 선생은 그 피할수 없는 만행을 매일같이 기다리였다고 하였다

선생의 살아계실시 회상담에 의하면, 한번은 선생을 고리게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1945년 5월중순이였다. 쏘련 전체에서는 독쏘전쟁에서 대승리를 쟁취하고 인민들이 아직 쾌락을 늦기며 웃는사람도 있었고,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울고 있는 가정도 있었다.

철운 선생은 어때에 안지산주 자흐리잡군역 쓰타린 꼴호즈에서 2년간 한글 교원을 하다가 강제퇴직 당한 이후 경제적으로 생활형편이 너무나 궁하여 타슈켄트주 굴리쓰탄 꼴호즈에서 회장 일을 하고 있는 옛 원동에서 사귀운 친구 최영필 동지를 찾아와 1940년도부터 꼴호즈 부회장 겸 생산부장 직무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었으며 이웃의 인들도 싸 위신이 어만 저만 하였다 원래 김철운 선생은 성미가 결단성이 있고 원리가 밝았기때문에 어리의 군중집단에서도 선생은 신속히 많은 친구들을 얻었으며 위신있는 인물로 등용되였다.

몇명극소수를 제외한 한인들은 정치적불신임 인민으로 인정당하여 직접 전쟁판에는 초모되며 나가지 않았으나 전쟁시기 부렵이란 쉽지 않았다. 모든 국가적 세금도 높았지만 말로는 자원적이라 하면서 추가적으로 적립을 모집하며 해방지구에 발송하는 한편, 여유의복 징수, 딴크, 비행기 건설을 위한 재정모집, 끝으로 자동차, 자전거까지 모집하는 이외에 한인들은 로동전선이란 명목하에 포탄이 날려오는 전선가까이서도, 쏘련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꼬미 자치국에 가서 철도를 부설하는 등 일은 제일선에서 적과 대전하는 일에서 못지지 않았다.

한인들과 같은 처지에서 있은 독일인, 체첸인, 깔미크인 등등 많은 인민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긴장한 시기를 지내보내고 좀 숨을 자유롭게 쉬며 살아보자 하는 시기였다

선생의 살아계실시 회상담에 의하면, 한번은 선생을 고리케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1945년 5월중순이였다. 쏘련 전체에서는 독쏘전쟁에서 대승리를 쟁취하고 인민들이 아직 쾌락을 느끼며 웃는사람도 있었고,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울고있는 가정도 있었다.

철운 선생은 이때에 안지산주 자흐리잡스크역 쓰나린 꼴호즈에서 8년간 한글 교원을 하다가 강제퇴직 당한 이후 경제적으로 생활형편이 너무나 궁하여 타슈켄트주 굴리스탄 꼴호즈에서 회장일을 하고있는 옛원동에서 사귀운 친구 최영필 동지를 찾아와 1940년도부터 꼴호즈 부회장 겸 생산부장 직무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잘 살고있었으며 이웃의 인들도 다 위신이 어만 저만 하였다 원래 김철운 선생은 성미가 결단성이 있고 원리가 밝았기때문에 어리의 군중집단에서도 선생은 신속히 많은 친구들을 얻었으며 위신있는 인물로 등용되였다.

몇명국 소수를 제외한 한인들은 정치적 불신임 인민으로 인정당하여 직접 전쟁판에는 소모되어 나가지 않았으나 전쟁 시기 부렵이란 쉽지 않았다. 모든 국가적 세금도 높았지만 말로는 자원적이라 하면서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모집하여 해방지구에 발송하는 한편, 여유의복 징수, 딴크, 비행기 건설을 위한 재정모집, 끝으로 자동차, 자전거까지 모집하는 외에 한인들은 로동전선이란 명목하에 포탄이 날려오는 전선가까이에서도, 쏘련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고미 자치국에 가서 철도를 부설하는 등 일은 제일선에서 적과 대전하는 일에서 못지지 않았다.

한인들과 같은 처지에서 있은 독일인, 체첸인, 갈미크인 등등 많은 인민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긴장한 시기를 지내보내고 좀 숨을 자유롭게 쉬며 살아보자 하는 시기였다

타슈켄트의 오월, 일년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 사방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벌써 익은 과일 - 체리, 살구들이 익어가는가 하면 땅 딸구는 때 늦어가면서 장마당에 진상되여 있는. 한편 만가지 채소들은 높이 기울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때, 얼마로 파연 철양하였다.
바로 점심때였다. 군관 두명이 올라탄 지프차에 자동으로 무장한 호송병 한명과 함께 굴러쓰탄 꼴호즈 관리위원회 앞에 도착하여 부회장 김철운이를 찾는것이였다.
이 말을 들은 관리위원회 회원들은 모도다 낙담하였다. 꼭 변함없는 1937-38년식으로, 게게베가 한인들을 무별적으로 잡아 검거하여 가던식이였다.

순식간에 꼴호즈 관리위원회 앞마당에는 20여명이 군중이 모여서 눈이 휘둥하여 그 군관들의 거동을 살피는 한편 김철운 선생도 동정값 어린눈으로 쳐다보군하였다. 지프차를 둘러싸고 모여선 군중들에게 향하며 중좌급 견장을 단 군관은 말하기를 «공화국 군사동원부의 명령에 의하여 김철운 씨는 금일 소련군대에 초모되여 가게되였다고 하면서, 곁에 서고 있는 같은 급의 중좌 군관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바로 공화국 군사동원부 대표하라고» 하였다. 다음 계속하여 군 군사동원부장 중좌는 말씀하기를 지금 곧 집에 돌아가 준비하여가지고 군 군사 동원부에 가야 되며, 거기에서 수속한다음 금일로 모스크바로 출발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군군사동원부장은 철운 선생에게 말씀하기를 집에가서 별준비할것없이 가족과 작별하고 내의 2벌만 가지고 떠나면 된다고 하면서 금일 모스크바로 떠날 차표는 벌써 마련되여 있기때문에 저녁 5시 까지 타슈켄트 역 전에 도착하여 기차를 타야된다고 하였다. 철운 선생이 집에 도착하니 부인 봉숙이는 벌써 이소식을 듣고 눈물에 잠겨 있었다

1946년에 김철우 선생의 가족이 북한으로 나갈시 맞딸 진옥이는 출가하였기에 갈수없었다.

군 군사 동원부에서 다시한번 작별한 철우 선생은 꼴호즈 관리위원회 회장 이자 집체 성원들의 일어 대단히 고마웠다. 사실 꼴호즈에는 여단장 최영철 이 외에 박창선, 김칠성, 김영철 등 동지들이 조선에까지 같이 나가 사업한. 이 외에도 많은 삶 동무들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다시 돌아올수 없는 길이 여서 그랬는지, 또는 사랑하는 부인과 어린아이들을 떨쳐두고 가는길이 너 무나 서운해서인지 김선생의 안질에서는 눈물어슬이 돌고 있었다.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룻사이에 천지개벽하는 밤을 명령 에 따라 모스크바에 도착하니 모스크바 총참모부 무력성 대위가 김 철우 선생을 까잔 역전에서 맞중하였다. 김철우 선생은 자기를 맞중하여준 군관의 승용차를 타고 모자이크 거리로 향하여 가는것은 집벽들에 써붙인 글들을 읽어보고 알수있었으나 그것 이 외국으로 파견하는 정찰병 훈련소, 혹은 정찰병군관학교, 또 혹은 나하마노브 군관학교에로 가는 길이라는것은 알수 없었다. 길죽한 삼림속에 안전하게 숙파묻혀 있는 벽개 의 건물이 밀습적하게 단 한이 만들어진 철찬 울탈이

앞에 드문-드문 서있는것을 발견할수 있자, 그중 한집 앞에 가서 차를 멈추고 김선생의 적으마한 도랑구를 잡으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다. 사층에 올라가 베루를 누루더니 어떤 군인 한명이 문을 열어 주는것이였다. 집안에 들어가자 집은 사무실이 아니라 어떤 사택 모양으로 꾸며진 집이였으나 한쪽편에는 침실, 식당 세면실로 있는한편 다른 편에는 사무실에 적으마한 도서관 비슷한 방도 있었고, 벽에는 여러가지 지도들이 걸려 있는것을 볼수 있었다. 군관은 김선생과 말슴하시기를 여것이 선생의 침실이니 여기에서 유숙하시고 식사하시고 래일 아침 8시30분에 자기가 친히 선생님 모시러 올터이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언제부터는 여기에서 유식하시고 출근은 무력성 작전국에 하여야 될것이라고 하였다. 첨부적으로 한 양일간 될수있는대로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게와 전화 련각도 즘할하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김선생의 가정에는 근일이내로 목적지 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는것을 특사를 파견하여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안녕히 게시라고 말하면서, 선생게 전적으로 배속된 통신원 겸 련락병은 아무개라고 말하면서 그 군인을 불러 잘봉사하여 드릴데 대하여 잘 타일렀다.

김철우 선생은 정하여준 사택에서 식사도 잘하고, 따뜻한 물에 미역도 잘 감고 밤잠도 잘잤으나 대관절 무엇을 위하여 어렇게 까지 극비하여 모스크바 까지 모서왔다는 것은 상편 무력성 작전국에 아침 9시에 도착한다음 에야 알게되였다. 작전국 비밀서류들 가운데는 조선, 일본 중국등지에서 입수된 각종 적황에 대한 재료들이 일어로 기록된것이 무수하였다. 일부 재료들은 로어로 번역하였으나 아직 손대지 못한것이 많으며, 또 어떤것은

읽어보고 표기는 하였으나 번역은 하지 못한채 방팀하여 둔것이 많았다. 무력성 작전국은 이당시에 벌서 대일전에 대한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철운 선생은 알수 없었다. 이 방대한 사업은 전체 무력성 수뇌부가 극비에서 진행하였으며, 그대 일본 점령계획이 현실적으로 작성되자면 수만 수천의 현지 정찰 재료들이 리용되여, 작전지도에 기입되여야만 하였던것이다. 김철운 선생은 작전국에서 매일 그 정찰 재료들을 번역한것이 아니라, 그 번역하여 놓은 재료들의 정확성을 수정, 검열, 정정하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오개월 가량 복잡하고 책임적인 사업이 끝난다음 철운 선생은 무력성 명령에 의하여 원동변강 제일전선 사령부에 배속되여 1945년 8월 7일에 블라지보스또크에 도착하였으며 그 다음 쏘련군대와 같이 북한 평양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때에야 철운 선생은 자기가 온 여름동안 애를 써가며 하여놓은 일의 가치를 알게 되였으며, 그로 인하여 무력성 간부국으로부터 적기훈장으로 표창된것을 큰 영예감으로 인정하였다.

사진은 1945년 10월에 철운 선생이 자기 친척 누이동생과 매부를 찾고, 이런 자기 동지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다.

앞줄 중심에 김철운 선생, 뒤줄 우편에 매부, 다음 누이동생이다.

쏘련군대가 평양에 8월 24일에 입성하자 평양시 쏘련군 경무부가 조직되였던때 김철윤 선생은 여기에서 책임적 번역관으로 근무하였으며, 군사 칭호는 쏘련군 대위였다. 이때의 평양의 정세는 대단히 복잡하였다. 아직 김일성 부대도 조선에 들어서지 않고, 쏘련군 민정 사령부도 조직되지 안아, 쏘련군이나, 일본군이나 군대에 대한 문제는 시 경무부가 해결한다 친다 하여도 사회 인민단체에 대한 문제가 대대적으로 제기되여 평양 정치적 환경이 복잡하였던것이다. 그 전날까지는 일본 경찰서나, 헌병대가 한인들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에 천황 폐하가 항복한 이후로는 한인들이 절대로 일본인들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았던것이다. 한인들이 조직한 자위대가 있었으나, 아직 인민기관이 없는 조건하에서 이 기관은 쏘련군대가 인정하지 안았다. 이런 환경에서 무장하고 제일 권력있는 군대는 쏘련군이였으나 그도 역시 시민들에게 대하여 강탈, 강간, 음주 폭행등을 종종 하여 시 경무부에는 신소사건이 빈번하였다. 쏘련군 시내 입성후 약 2개월후, 임시인민위원회가 나왔으며, 쏘련군 25군단 내 민정 사령부가 조직된후 질서는 비록 완화되여 졌으며 일본 군대도 철거하여 갔으니 생활은 안정되였다.

김철윤 선생은 시경무부에 1946년 2월까지 있다가 쏘련 사령부 명령에 따라 조동되여 25군단 민정 사령부에 이동되였다. 여기에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토지개혁 그 다음 계속하여 산업국유화 등 아주 중대한 정치적 캄빠니야가 실행될시 책임적 번역관으로 계시다가 1946년 말부터 인민군대 조직에 전적으로 복무하였다. 북한 정부는 인민군대를 조직하려고 결심도 하였으나 군대 조직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군대 간부들이 전혀 부족되였다.

사진은 1954년 정전이후 찍은 철운 선생의 가족 사진.

때문에 북한 인민정부는 우선 군대조직전에 정치군관학교를 조직하여 소련고문 선생들의 방조로 간부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던바 철운선생은 이 정치학원에서 교원일을 약 일년간 하시다가 인민군대가 조직된후 민족보위성 군사과학국부국장 직무에 임명되여 군사과학을 전담하면서 소련군대의 모든규정들 — 내무규정, 위병규정, 대열규정, 전투규정, 야전규정 등을 번역출판하는 사업을 전담지도 하였다.

김철운 선생은 북한에 들어서 첫 누이동생과 매부를 만난다음 그들에게서 연길현에 살고있는 부모들이 주소를 확인한다음 이어 부모들을 평양에 모셔다 자기 가족과 결부시켰다. 근 20년간 서로 갈라져 있으면서 하나밖에 남지않은 아들을 보지못하여 애절하여 계시던 부모들은 아주 기뻐하였다. 그들에게는 이중적 반가움이 겹쳐서(즉 아들 만남과, 조국땅에 돌오게 된것) 자기들의 생애의 맡이막 시간까지 아주 행복 즐겁게 지내시다가 부친은 1962년에, 모친은 1967년에 돌아가셨다. 김철운의 누이동생은 15세 때에 집에서 떠나 빨찌산 부대로 도망갔다음 역시 중국 동란에 넘어가 한연 빨지산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조국해방과 때를 같이하여 자기고향 길주에 돌아와 방직공장에서 책임자

일을하고 있는것을 김철운 선생을 만나서 그후 철운선생의 생애 마지막까지 친밀하게 연락하면서 살게되였다.

우즈벡탄 타슈켄트에 살고있는 김철운 선생의 딸 진옥이와 선옥이 딸과같이 찍은 사진

우즈벡탄 타슈켄트에 살고있 김선생의 딸 형제는 부모들이 떠나가신후 한동안 부모들을 그리며 외롭히 지내면서 앞으로 생활에 대한 자기준비를 넉넉하게 하였다. 진옥이는 자기는 대학을 나오지 못하였으나 악을써가며 노력하여 남편을 대학을 나오게하면서 두 아들 형제를 다 대학을 나오게하였다. 현재 맏아들은 따직크공화국 두산베시에서 알루미늄 생산 련합 합작 기업소에서 지배인 책임을 지내면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바 그들에는 아들 형제가 역시 대학을 나와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둘재 아들 월로자 (맏아들은 펠릭스) 따슈켄트 큰 기업소에서 책임기사로 일하는바 딸 형제를 아주 귀엽게 자리우고 있다. 진옥의 동생 선옥이는 모스크바 의대를 마감한후 한동안

북한에 가서도 의사로 일하다가 모스크와에 돌아와 자기 기능 대로 일하다 9년전에 연금생으로 수속한후 현재에는 형이 계신 타슈켄트에 이사하여 와서 행복하게 자식들과 같이 살고 있다.

사진은 1980년 여름에 진옥이 자기 남편 허블라지미르와 같이 유람선을 타고 볼가강에서 한달동안의 행복한 시간을 보냄.

김선생의 딸 진옥이는 쏘련이 붕괴되기전 1980년대 말기까지는 일년에 일개월씩 남편이 일하는 직장에서 무료 휴가 휴양장을 받아가지고 볼가강 유역, 크림, 북깝까즈, 발찌크 해변등지로 휴양갈수 있었다. 쏘련이 붕괴된 금일 현재에 와서 휴양소에는 다만 자본가들만 가서 휴양하는 곳이 되고 보통 인민들에게는 애쉬스러운 회고만 남아 있다.

김철윤 선생과 같이 독쏘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타슈켄트 굴리스탄 꼴호즈에서 고독을 같이하다 조국해방의 반가운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북한에 가서 사업하던 박창선, 김필립프는 철직 추방되어 타슈켄트에 와서 작고되고,

굴리한 학교 교원노릇하다 조선에 나간 김칠성 선생은 「전사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김일성 빨찌산부대의 군사능력을 비방하였다는」 자기 가접은 동무의 밀고에 의하여 검거 총살 당하고, 부인과 아이들은 우즈크친에 귀환한 후 대학들을 마감하고 현재에 경공업부 차장까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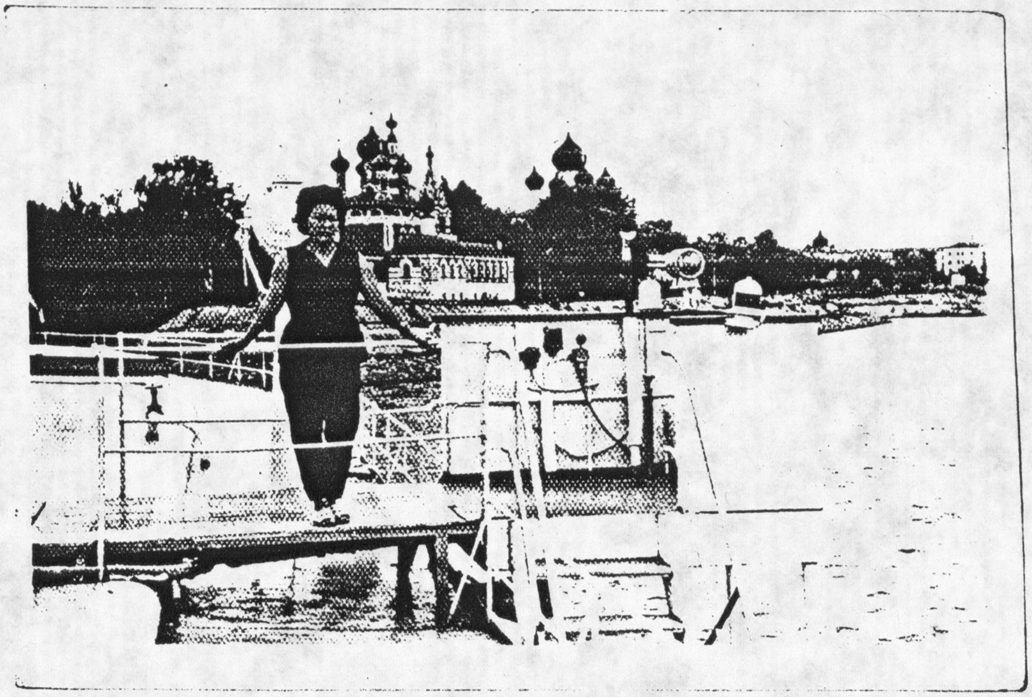
김철운 선생은 조국해방의 첫날부터, 조국땅에 발을 들여놓던 첫날부터, 또 전쟁시기 어려운 때나 또 특히나 전후 사상검토가 시작되면서 매일 수십명식 철직, 추방, 검거가 계속되었으며, 소련에서 온 많은 동무들이 소련에 돌아 가고 있었으나 김철운 선생만이 죽어도 자기 고향땅에서 죽지, 또 살아도 자기 고향땅에서 살지 다시는 타국에 안가겠다고 하시면서, 소련에서온 전체 간부들은 자기 자식들을 전부다 소련에 유학 보냈음에도 불고하고 철운 선생은 자기 아들을 북한대학들에서 공부하도록하였다. 이렇게 국내정세가 복잡한 환경속에서 철운선생은 자기가 맡은바 사업을 구준히 하면서 인민군대를 위한 각종 규정들을 전부다 번역하고, 몇년간 조국전쟁의 경험에 따라 많은것을 첨가, 삭제하며 출판하시고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각군사학들에 열심히 참가하여 군사과학에 대한 자기 상식을 제고시켰다.

김철운 선생을 가까이 알고있는 많은 동지들은 김선생에게도 앞으로 꼭 다른 소련간부들과 같이 사상검토의 흙색 폭풍은 닥쳐오리라는것을 예견하여 김선생을 사전에 감싸서 하는 동정감의 언사로 소련에 딸도 있고 사위도 있으며, 소련군대에 그만한 공이 있으니 언제 다시 소련에 도라가 연금만 받고 살아도 호의호식할터이니 가자고 하였으나, 철운 선생은 「갈사람은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조국땅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거절하군하였다.

김철운 선생은 건전하고 진실한 조국의 아들이였다.

1982년에 길주기계공장에서 일하는 철운선생의 장남 연식이 자기 부인과 같이 촬영하였음. (당시 - 42세)

김철운 선생에게도 사상검토 흑사병은 닥쳐오고야 말았다 사상검토 흑사병 굴레는 누구에게나 들이 씌우면, 조선속담에 '자루 쥔놈이 이기지, 날을 쥔놈이 이기랴'는 말과 같이 그만이였다. 그렇게 청백하고, 진정한 철운 선생더러 '네가 짓은 죄를 실토 하라, 허가이, 박창옥이하고 무슨 내통한 일이 있는지 내 놓으라 등으로 - 쏘련파 가족주의, 사대주의, 쏘련식 관료주의, 교조주의, 왜 쏘련군대 규정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번역하였는가? 이것은 쏘련것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다 등으로 1960년 말부터 1961년 정월까지 2개월동안 회관장을 말리가며, 떼 밀같이 없는죄를 내여 놓으라고 찌저 댔다. 김선생은 거저 한가지 대답으로 자기는 친쏘파도 아니며 관료주의도 쓴것이 없다하며, 거저 허물 짓었다고 본다면 쏘련것이 좋다고 인정한 외밖에는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쏘련 군대 규정을 기본으로 삼다나니 그렇게 되였다고 하였다



사진은 철운 선생의 맏딸 진옥이 1984년에 볼가강 유역 휴
양소에서 휴양하고 있는 모습. 이때에 아버지는 벌서 세상 떠났다.

이개월동안이나 끌며 속태우게 하던 당사상검토 회의는 유
명한 반소거두 김창만의 지도하에 아무런 죄도 없은 김철운
선생을, 책임 직무에서 철직식혀 자기 한생지 길주로 내려
보내며, 당에서는 엄중경고 처벌을 당 등록 카드에 기입할것이
며. 이개월 어내로 평양의 살림집을 내는 동시에 대학에
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출학하여 같이 내려가도록 할것이
란 결정을 내리였다. 이것은 하북에 내려가 로동단련을 하라는것이였다

이후 김철운 선생의 가정 운명은 당 사상검토회 결정
그대로였다. 길주에 내려가신 김선생은 농촌일이라곤 어려
서 때부터 한번도 해보지못한, 말씀 그대로 촌장이여서
아무것도 할수없었다. 때문에 일못하는 부양가족과 같이
아이들 뒤를 따라 다니며 도웁 일이나 하였기때문에 부양
가족 배급-1매일 200 그람의 잡곡과 쌀 절반씩 배급을 받았다.
아이들 삼형제는 부모들과 같이 농촌에 나가 막로동일을
하였다 어른들은 그래도 자기가 살 날이를 다 살아서 덜아
까우나 아이들일이 아주 난처하고 불상하였다. 1962년에
맏이막 끄매어가 그 당시 날이 37 세였던바 손 도리지에

의하면, 형들은 부모들과 같이 농촌에 내려온 어속로공
복를 궁회하고 협동조합에서 막일을 하다 맏형만 현재
길주 기계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였으며 자기는 둘째 형과
같이 부모들이 돌아가신 후 맏형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맏형은 페결핵에 걸려 고생
하고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진옥이에게 부탁하기를 페
결핵에 쓰는 페니실린 약을 좀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진옥이는 그 약을 구하여 발송하였으나 우편국에서
외국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아주 높아서 소포를 찾을수
없으니 앞으로는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후
편지 거래도 아주 두절되여, 벌써 십여년간 동안 아무
런 소식도 알수없다.
나의 최후의 원망은 조국이 신속히 통일되여, 인민
들이 마음대로 내왕하도록 하였으면, 내 마음대로
북한 길주에 가서 나의 남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눈으로 보았으면 좋겠고, 아버지, 어머니
묘지에 제나 지내고 절이나 하였으면, 그 원망이 다
풀려질것 같다.

김철윤의 딸 김진옥의 재료에
의하여 장학봉 씀.

24/11-1996 г.